

〈동백꽃 필 무렵〉 연구

—로컬의 낭만과 추리서사의 전략적 병합

이다운*

〈차례〉

1. 서론
2. 로컬리티의 활용과 보수적 낭만의 체현
3. 추리서사의 보조적 삽입과 복합장르의 탄생
4. 결론

국문초록

〈동백꽃 필 무렵〉은 서울이라는 천편일률적인 공간성에서 벗어나 로컬리티의 의미를 재고하고 폭력적 시대에 오염되지 않고 일상을 지켜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그 결과 〈동백꽃 필 무렵〉은 “2019년 최고의 드라마”로 평가받으며 그동안 한국 텔레비전드라마가 간과했던 비주류의 이야기로 주류의 자리를 선점한 이례의 결과를 낳았다. 〈동백꽃 필 무렵〉은 웅산이라는 가상의 로컬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도시와 다른 낭만적 삶을 체현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웅산은 취업, 경쟁, 성공 등 도시의 생존 법칙으로부터 빗겨나 있으며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역시 현대의 도시 사람들과는 다르게 전근대의 노스탤지어를 자극한다.

〈동백꽃 필 무렵〉은 웅산 주민들의 생업 문제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웅산의 낭만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웅산의 낭만성을 강화하는 계장골목은 웅산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장소로 존재하며 주민들은 공통경험으로 구축된 견고한 관계성을 보여준다. 이렇듯 웅산은 지리적 조건에서부터 특별한 장소성 그리고 사람들까지 ‘로컬 판타지’를 강화하는 데 일조한다. 그리고 로컬로서 웅산의 판타지는 남성 중심인물 용식을 통해 절정에 다다른다. 하지만 〈동백꽃 필 무렵〉은 로컬을 낭만적으로 재현하되 시대적 불안을 간과하지는 않는다. ‘까불이’라는 미스터리한 인물을 활용해 평화로운 웅산에도 범죄와 공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백꽃 필 무렵〉은 로컬과 로컬 주민의 낭만적인 정황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까불이라는 인물과 살인사건을 서브플롯으로 삽입하여 극적 긴장감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한다.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또한 <동백꽃 필 무렵>은 인물과 사건의 진실을 마지막까지 은폐하며 감상자에게 의도된 오인과 혼란을 줌으로써 극적 긴장감을 끝까지 지속하게 한다. 정적인 서사뿐만 극이 점철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미약한 긴장감의 문제를 중심서사를 보조해 주는 추리서사를 삽입함으로써 해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폭력적인 시대를 망각할 만한 낭만을 제공하되 폭력적인 시대를 간과하지 않는 것, 낭만으로의 탈주와 현실 문제를 적절하게 병합한 것이 <동백꽃 필 무렵>이 여타 작품들과 변별되면서 대중과 평단에 큰 호응을 받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동백꽃 필 무렵>, 공간, 낭만, 로컬, 로컬리티, 장소, 추리서사, 복합장르, 텔레비전 드라마

1. 서론

지난 몇 년간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주된 경향 중 하나는 ‘폭력적인 시대를 폭력적으로 재현하는 것이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권력과 연계된 범죄 사건을 다루는 수사물이 대량 제작되면서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대표 장르였던 로맨스물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범람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케이블드라마의 시청률이 높아지면서 지상파가 케이블드라마의 서사 전략을 일정 부분 모방함으로써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에서는 화려하지만 비열한 이미지의 도시(서울) 그중에서도 기업이나 검찰청을 배경으로 하며 성공한 자들의 타락한 정황을 포착하는 이야기가 다수 제작되었다. 물론 해피엔딩을 불문율로 간주하는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특성상 이들 작품의 마지막은 ‘정의를 승리한다’로 귀결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폭력적인 세계를 재현하는 데 주력하기 때문에 최근 텔레비전드라마는 인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선정적으로 자극하는 데 일조해 왔다.

그런데 <동백꽃 필 무렵>(KBS2, 2019)은 최근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경향성을 영민하게 벗어나며 보수적인 판타지로 대중과 조우하는 전략을 선보였다. 미혼모 동백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는 평범한 사람

들의 치열한 노력과 성장기를 다룬 <동백꽃 필 무렵>은 폭력적 시대에 오염되지 않고 일상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특히 <동백꽃 필 무렵>은 서울이라는 친편일률적인 공간성에서 벗어나 로컬의 의미를 재고하고 로컬리티의 특성을 극 전체에 반영함으로써 기존 텔레비전드라마와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구축했다. 그 결과 <동백꽃 필 무렵>은 “2019년 최고의 드라마”¹⁾로 평가받으며 그동안 한국 텔레비전드라마가 간과했던 비주류의 이야기로 주류의 자리를 선점한 이례의 결과를 낳았다. 물론 <동백꽃 필 무렵>이 처음부터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청률 6.3%(1회, ABG 닐슨, 전국 통합)에서 시작하여 23.8%로 종영한 과정을 살펴볼 때 <동백꽃 필 무렵>은 대중의 감상의지를 이끌어내는 특별한 내·외적 근거를 보유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²⁾

그렇다면 ‘비주류의 이야기’라 할 수 있는 <동백꽃 필 무렵>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평론가와 대중 그리고 전 세대에 걸쳐 큰 호응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에서 본 논문은 출발한다. <동백꽃 필 무렵>은 극명한 선악구도 가운데 발생하는 자극적인 사건의 선정적인 전시, 현대인의 욕망을 부추기는 화려한 삶의 양태, 비범한 조건을 갖춘 남성 및 여성 인물의 로맨스 등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전형을 답습하기보다 감상자에게 낯선 쾌감을 선사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낯선 전략은 도시의 삶이 제공하는 스트레스에서 탈주하고 싶은 피로한 대중의 내밀한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즉 <동백꽃 필 무렵>의 첫 번째 특성은 웅산이라는 가상의 로컬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도시와 다른 낭만적 삶을 체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웅산은 취업, 경쟁,

1) 「우리가 동백꽃 필 무렵을 주목하는 이유」, 『cine21』, 2019.11.14.

2) 한동안 지상파 텔레비전드라마의 시청률이 저조했으며 OTT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생방송으로 텔레비전드라마를 감상하는 시청자의 비율이 낮아진 상황도 불구하고 <동백꽃 필 무렵> 전 세대에 걸쳐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시청률이 작품성의 척도는 아니지만 대중의 관심과 흥미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간주할 때 <동백꽃 필 무렵>은 전 세대에 걸쳐 큰 관심과 호응을 받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공 등 도시의 생존 법칙으로부터 빗겨나 있으며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역시 현대의 도시 사람들과는 다르게 전근대의 노스텔지어를 자극한다.

하지만 <동백꽃 필 무렵>은 로컬을 낭만적으로 재현하되 시대의 불안을 간과하지는 않는다. ‘까불’이라는 미스터리한 인물을 삽입하여 평화로운 웅산에도 범죄와 공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동백꽃 필 무렵>은 안전하고 조용한 웅산에 범죄로 파장을 일으키는 까불이가 과연 누구인지를 밝혀가는 과정을 또 하나의 서사 축으로 삽입하여 은폐의 긴장을 유발하는 장르물의 전략을 일정 부분 표방한다. 또한 까불이의 범죄 행각은 현재 한국의 사회 문제로 대두된 혐오범죄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작품의 두 번째 특성이다. 정리하자면 폭력적인 시대를 망각할 만한 낭만을 제공하되 폭력적인 시대를 간과하지 않는 것, 낭만으로의 탈주와 현실 문제를 적절하게 병합한 것이 <동백꽃 필 무렵>이 여타 작품들과 변별되면서 대중과 평단에 큰 호응을 받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동백꽃 필 무렵>을 ‘로컬리티’³⁾ ‘낭만’⁴⁾ ‘추리서사’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로컬’과 ‘로컬리티’는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는 개념이다. 가령 로컬은 하나의 국가일 수도, 지역일 수도, 도시일 수도, 동네일 수도, 집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한 개인의 신체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로컬을 논하는 주체의 위치가 어떠한지에 따라 로컬의 의미는 상이해진다(박경환, 「글로벌, 로컬, 스케일 공간과 장소를 둘러싼 정치」, 『로컬리티 인문학』 Vol.5, 부산대학교 한민족문화연구소, 2011, 50면 참고.). 본고에서는 로컬을 중심부(서울)로부터 떨어진 일련의 지역의 지역을 로컬리티를 로컬이 가진 특유의 지역성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4) ‘낭만’이라는 개념 역시 복합적 의미를 내포한다. 낭만(성)은 18~19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근대 계몽주의의 합리성에 반하는 감정, 상상력, 자유, 동경 등에 가치를 두는 낭만주의 혹은 비현실적이고 공상적인 의미를 지닌 소설(로망스)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 낭만의 개념과 의미는 통속화를 거쳐 감상적인 분위기를 추구하며 현실의 구속에서 벗어나 이상과 환상적인 분위기를 추구하는 개념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도 낭만을 특정 사조에 국한한 의미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일반적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2. 로컬리티의 활용과 보수적 낭만의 체현

‘서울 공화국’이라는 수식어가 말해주듯 한국은 수도 서울에 과도한 권위를 부여해 왔다. 인구 절반이 서울과 서울 근교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서울이 정치와 문화의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다. 문화의 경우에도 서울 집중화 현상은 두드러진다. 문화 인프라는 서울에 편중되어 있으며 문화 콘텐츠에서 재현하는 대다수의 공간 역시 서울이다. 2000년대 이후 부산 등 서울 외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제작되고는 있지만 1950년대에서 1990년대에 제작된 영화의 대부분은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⁵⁾ 텔레비전드라마 역시 공간적 배경이 서울이 아닌 작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적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관계 해체를 지속적으로 기획하는’⁶⁾ 로컬리티에 관한 의지가 부재한 까닭에, 대부분이라는 수식어가 과장이 아닐 정도로 한국 텔레비전드라마는 서울 이야기에만 집중해 왔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로컬 차별 현상은 문화 콘텐츠의 편향된 공간 설정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동백꽃 필 무렵〉은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불문율과 같은 ‘서울 대신 ‘지방’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한다. 물론 ‘충청남도 웅산군’이라는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작가가 고안한 가상의 지역이다. 그러나 실제 지역을 지시하지 않더라도 충청남도의 바닷가 마을과 계장거리라는 세부 설정은 특정 지역을 상기하게 함으로써 일련의 공간적 리얼리티를 구성한다.⁷⁾ 그로 인해 〈동백꽃 필 무렵〉은 서울이라는 불문율을 벗어나는 데서 발생하는 위험을 감수한 대신 그동안 수많은 텔레비전드라마가 서울에 부

5) 최용성, 「부산 로케이션 영화와 탈식민성의 로컬문화윤리」, 『한민족문화』 Vol.47, 부산대학교 한민족문화연구소, 2013, 9면.

6) 장세룡 외, 『사건, 정치의 토포스』, 소명출판, 2017, 117면.

7) 이러한 이유로 방송 초기에는 ‘웅산’을 실제 지명으로 착각하는 시청자도 많았다. 또한 〈동백꽃 필 무렵〉의 실제 촬영지는 포항 구룡포 일대다.

여한·괴상적이고 진부한 장소 정체성⁸⁾을 탈주할 기회를 획득한다. 게다가 서울 그리고 도시와는 확연히 다른 장소 정체성을 보유한 웅산은 새로운 이야기와 인물을 생산할 토대를 마련해준다. 이로써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거래행위 즉 정치성이 개입되는 로컬이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로컬서사⁹⁾'를 표방하는 <동백꽃 필 무렵>은 로컬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며 그들이 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묵인된 진실을 알려준다.

웅산은 '살과 살이 부대끼며 경험되는 로컬의 다층적인 움직임'¹⁰⁾을 간직한 곳이다. 삼대가 모여 사는 웅산은 혈연공동체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장모에 처형에 동생에 사방이 다 뿌락치"이자 "고종사촌 누나의 부군과 경찰서장이 거진 사돈지간"일 정도로 웅산 주민들은 혈연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된다.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씨족사회의 특성을 간직한 웅산은 계장골목을 중심으로 토박이 네트워크라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으며 외지인이 투입하기 힘든 폐쇄성을 갖는다. 물론 로컬 특유의 폐쇄성은 외지인을 배척하는 부정적 양상을 띠기도 하지만 이 폐쇄성 덕분에 웅산은 오히려 평화롭게 느껴진다. 개인주의와 익명성의 소외가 만연한 도시와 다르게 웅산 주민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으며 혈연공동체이자 운명공동체로서 함께 도우며 살아간다는 연대의식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백꽃 필 무렵>은 하나의 거대한 가족처럼 보이는 웅산을 통해 도시가 보여줄 수 없는 로컬리티의 고유한 특성을 재현한다.

그동안 로컬은 대도시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퇴보한 곳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낭만적 공간이라는 양가적 시

8) 에드워드 렐프는 대중 매체가 단순화되고 선택적인 장소 정체성을 대중에게 제공한다 고 분석한다(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현, 2008, 134면 참고).

9) 이유혁 외, 『로컬서사와 재현』, 소명출판, 2017, 3면.

10) 부산대학교 한민족문화연구소 역음, 『로컬의 일상과 실천』, 소명출판, 2013, 3면.

선을 받아왔다. <동백꽃 필 무렵>은 전자 다시 말해 로컬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로컬의 낭만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로컬리티를 활용한다. 먼저 바닷가에 위치한 웅산은 아름다운 배경으로 둘러싸여 목가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장면-1,2> 참조). 특히 물이 제공하는 근원적 안락함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바닷가 마을의 풍경은 무의식적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그로 인해 마천루나 교통 체증이 없는 웅산의 아름다운 풍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의 틀에 박힌 일이나 노동의 사회적 책무로부터 철저히 철수할 수 있게¹¹⁾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웅산은 비록 까불이라는 위험인물이 존재하지만 복실이(누렁이)를 살피는 게 경찰의 일이 될 정도로 평화로운 곳이다. 게다가 주민 대부분이 계장골목에서 일하기 때문에 취업과 승진 스트레스나 계급 차이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은 살펴 보기 힘들다.



<장면-1> 5회



<장면-2> 6회

<동백꽃 필 무렵>은 웅산 주민들의 생업 문제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웅산의 낭만성을 극대화한다. 웅산 주민들의 애환이나 힘들게 장사하는 모습은 최대한 생략하고 대신 계장골목에서 담소를 나누며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장면-3,4> 참조). 특히 웅산

11) 예바 일루즈는 또한 ‘자연적이거나 이국적인 배경에서 경험한 낭만적 순간이 사치스러운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보낸 것보다 더 강력하다’고 주장하며 로맨스에서의 낭만적 공간의 중요성을 피력한다(예바 일루즈, 박형신·권오현 옮김,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사랑과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이학사, 2014, 245-246면 참고).

의 낭만성을 강화하는 계장골목은 웅산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장소로 존재한다. 이-푸 투안은 ‘완전하게 익숙해졌다고 느낄 때’ 그리고 ‘명확한 뜻과 의미를 획득함에 따라 공간이 장소로 전환된다고 말한다. 즉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에 가치와 의미가 부여될 때 그곳은 장소로 거듭나게 되는데¹²⁾ 이때 장소성은 독특한 경관, 장소와 관련된 활동, 장소의 의미 등이 결합하여 구성된다.¹³⁾ 웅산의 계장골목은 생업과 친목은 물론이며 공동육아까지 이루어지는 근린의 장소로서 집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계장골목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개방성인데, 하나의 길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골목에서 벌어지는 일을 실시간으로 함께 체험한다. 그로 인해 계장골목을 위시 한 웅산 주민들은 “어느 집 된장 떡배기 이 나간 것까지 다 알고” 있으며 공통경험으로 구축된 견고한 관계성을 보여준다.



<장면3> 13회



<장면4> 29회

이러한 이유로 웅산은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이상적인 고향의 장소감 (sense of place)을 발산한다. 엄마와 종렬에게 버림받은 동백이 웅산에 입성한 이유 역시 웅산이 고향을 대리하기에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연애 시절 종렬로부터 “고향이었던 하는 동네”로 웅산을 알게 된 동백은 “밥 때가 되면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가면 돼. 그게 되게 당연한 동네거든. 그냥 가족 같아(20회 中).”라는 종렬의 말을 듣고 “친절하지는 않지만 뜨듯

12) 이-푸 투안, 구동희 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124·219면 참고.

13) 에드워드 켈프, 앞의 책, 112-115면 참고.

한’ 옹산에 터를 잡는다. 처음에는 토박이 네트워크에 귀속되지도 않고 장소 규율을 체화하지도 않은 동백은 옹산 주민들에게 배척당한다. 그러나 이방인 동백과 필구를 가족으로 품어내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 있는 옹산은 이내 로컬에 관한 로망을 갖게 한다. 극 중에서 종렬과 제시카가 살고 있는 서울은 SNS와 미디어를 중심으로 가식과 위장이 만연한 곳이며 자본주의적 욕망이 넘쳐나는 불온한 곳으로 재현된다.¹⁴⁾ 그래서 종렬은 서울에서 상처를 받을 때마다 “환장할 비상구”인 옹산으로 향한다. 옹산은 도시의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 안전한 곳이기 때문이다.

자기중심적 문화의 규범과 기대감 때문에 타인과 교류하거나 공통분모가 있다는 신념마저 약해진 ‘근시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독립적인 삶의 양태 속에서 불안과 공포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¹⁵⁾ 그로 인해 오늘날에는 존재의 불안정이라는 새로운 유행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자유의 일부를 서슴없이 포기할 것이라 예상케 하는 징후가 늘어나고 있다.¹⁶⁾ 이러한 공포와 불안은 도시에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콜린 엘러드가 주장하는 것처럼 로컬의 응집력이 결여된 도시는 심리적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빠른 시간 안에 친족의 시선에 그대로 노출되는 생활양식에서 낯선 사람들이 밀집된 비좁은 공간에 모여 살게 됨으로써 현대인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충동이 강해졌다. 도시는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관계망이 미비하며 그로 인해 낯선 군중 속의

14) 종렬과 제시카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좋은 아버지와 남편, 어머니와 아내를 연기한다. 또한 제시카는 SNS를 통해 특별하게 포장된 자신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이처럼 〈동백꽃 필 무렵〉에서 서울은 진짜 관계가 부재하고 남들이 인정해 주어야 존재가치가 부여되는 허황되고 공허한 공간으로 재현된다.

15) 폴 로버츠는 현대사회를 ‘근시사회’라 명명하며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살 경이로운 특권을 획득했지만 자아만을 위해 살아가는 현 시대를 충동과 심리적 불안이 증폭된 시대라고 보았다(폴 로버츠, 김선영 옮김, 『근시사회』, 민영사, 2016, 9-18면 참고).

16) 지그문트 바우만, 최호영 옮김, 『도덕불감증』, 책읽는수요일, 2015, 180면.

삶을 배태한다.¹⁷⁾ 따라서 ‘원자화되고 고독하며 파편화되어 연합의 힘을 상실한 채 오직 자기 자신만 해석하는 데’¹⁸⁾ 빠져 있는 도시인들에게 웅산은 낭만의 공간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웅산은 지리적 조건에서부터 특별한 장소성 그리고 사람들까지 로컬 판타지를 강화하는 데 일조한다. 그리고 로컬로서 웅산의 판타지는 남성 중심인물 용식을 통해 절정에 다다른다. “지프차의 엔진과 세단의 매너를 보유”했다 자평하는 용식은 ‘촌뜨파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대중의 호응을 받았다. 용식은 여타 텔레비전드라마의 매력적인 남성인물의 외적 조건을 거의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충청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투박한 외형의 촌스러운 시골 청년이다. 그러나 용식은 웅산의 장소감처럼 특유의 낭만적 판타지를 구현하는데 판타지의 핵심은 바로 ‘순박함’이다. 지금까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텔레비전드라마의 남성 인물들은 도회적이며 자본주의적 욕망을 체현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⁹⁾ 또한 2010년대 이후 텔레비전 드라마의 남성인물은 재벌 2~3세나 능력 있는 전문직 종사자를 뛰어넘어 신비롭고 초월적 능력을 갖춘 존재로도 그려지고 있다.²⁰⁾ 그러나 서울 대신 로컬을 선택한 <동백꽃 필 무렵>은 세련된 남성인물 대신 순박한 남성인물을 선택하며 로컬 주민만이 제공할 수 있는 순진무구의 판타지를 활용한다.

대중서사의 남성인물들은 친절해 보이다가도 위협적이고 지켜주는 듯 하면서도 상처를 주며, 외연적 행동은 강하지만 내면은 여린 복합적인 감

17) 콜린 엘러드, 문희경 옮김,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길벗, 2016, 180-216면 참고.

18) 지그문트 바우만, 앞의 책, 349면.

19) 심지어 <W>(MBC, 2016)와 같은 작품에서는 완벽한 조건의 이상적 남성상을 그리기 위해 개연성을 무마하기도 한다(백소연, 「텔레비전드라마 <W>에 나타난 서사적 삶에 대한 열망과 상상의 쾌락」, 『한국극예술연구』 제60집, 한국극예술학회, 2018, 155면 참고).

20) 백경선, 「초능력자 남성 주인공과 멜로드라마 캐릭터의 확장-텔레비전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별에서 온 그대>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61집, 한국극예술학회, 2018, 306면 참고.

정을 지닌 경우가 많다.²¹⁾ 그러나 용식은 외연과 내면이 일치하는 단순함의 미덕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우선하기보다 동백의 존재가치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실행한다. 또한 용식은 성평등을 지향하는 진보적인 젠더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킨십에는 한없이 보수적인 모습을 보인다.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존경하고 훌륭하다는 말로 동백의 삶을 위로하는 것도 용식이다. 이처럼 합리적이기보다 비합리적이고 이윤지향적이기보다 이윤이 없으며 자본주의의 관습적 범주들을 벗어나 상품 교환의 영역 너머에 위치하는²²⁾ 용식의 낭만적 사랑은 사랑마저 소유와 폭력으로 변질되는 현대의 정황과는 과도하게 동떨어져 있다. 하지만 이 과도한 동떨어짐이 용식의 더할 나위 없는 매력이 된다. 윤택한 시대에는 존재하기 힘든 무해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원거리화하면 시와 노래가 되며 모두가 낭만적이 된다²³⁾’라는 노발리스의 말처럼 웅산은 도시에서 먼 로컬일 뿐만 아니라 현대로부터 먼 시간성을 느끼게 하므로 더욱 낭만적으로 느껴진다. 역동적으로 진보해 나가는 서울(도시)과 다르게 더디게 흘러가는 웅산의 시간은 발전과 계몽의 책무에서 빗겨나 있으며 토박이의 고유성을 간직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동네 아줌마들 진짜 이상해. 나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맨날 김장하면 김치는 준다...그거 진짜 다른 거거든(17회 中).”이라는 동백의 말처럼 웅산 주민들은 이방인 동백이에게 무심하지만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게다가 까불이가 웅산을 불안에 빠트리자 ‘항미 씨가, 이웃이, 사람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한 웅산 주민들은 ‘무심하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그러나 분명히 시간과 공을 들여 동백을 지켜준다.

결국 이방인이자 삶의 의미를 상실한 동백에게 ‘구원의 공간이 되어준

21) 예바 일루즈, 김희상 옮김, 『사랑은 왜 불안한가-하드코어 로맨스와 에로티시즘의 사회학』, 돌베개, 2014, 59면.

22) 예바 일루즈, 위의 책, 19면.

23) 지명렬, 『독일 낭만주의 총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421면.

웅산은 비록 원거리지만 어딘가에는 현 시대와 다른 속력과 방향으로 존재하는 낭만의 로컬이 있다는 판타지를 갖게 한다. 웅산은 상처받은 동백과 정숙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자양분이 되어주었으며, 까불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등장해도 함께 처단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하는 곳이다. 고향을 상실한 시대에 가상의 고향이 되어준 웅산은 고향에 관한 감상자의 근원적 결핍을 일시나마 충족해준다.²⁴⁾ 그리고 이 로컬 판타지는 <동백꽃 필 무렵>의 주요한 전략이자 매력이 된다.

3. 추리서사의 보조적 삽입과 복합장르의 탄생

좋은 극이란 잘 짜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물의 행동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럴듯한 갈등이 풍부하며 중요한 문제들과 조우하게 될 입체적 인물이 등장하여 그로 인해 관객이 극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다.²⁵⁾ 그러나 픽션에서의 삶은 실제 삶보다 더 치열하고 특별한 극적인 경험으로서 내러티브 속 세상은 실제로 체험하는 일상과 동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감상자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좋은 극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되 동시에 어떤 문제나 문제의 소지를 심어줌으로써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상적인 삶을 다루는 작품일지라도 예상치 못한 변화나 위기 혹은 해결하기 힘든 사건이나 불길한 예감 등을 첨가하여 감상자에게 지속적인 긴장감을 제공해야 한다.²⁶⁾

24) 이-푸 투안은 고향에 대한 근원적인 애착은 특정 세대나 문화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한다(이-푸 투안, 앞의 책, 247면 참고). 따라서 웅산을 노스텔지어를 자극하게 설정한 것은 '고향'을 상실한 경험이 없는 세대에게도 고향의 낭만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만들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25) Louis E. Catron, 『The Elements of Playwriting』, Waveland Press Inc, 1993, pp.28-29.

26) 조단 E. 로젠펠드, 이승호·김청수 옮김, 『임팩트 있는 장면을 만드는 스토리 기법』, 비

전술한 바와 같이 <동백꽃 필 무렵>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 삶이 재현되는 용산을 통해 로컬의 낭만적 판타지를 주조한다. 그런데 <동백꽃 필 무렵>은 로컬과 로컬 주민의 낭만적인 정황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까불이라는 인물과 살인사건을 서브플롯으로 삽입하여 극적 긴장감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한다. 또한 인물과 사건의 진실을 마지막까지 은폐하며 감상자에게 의도된 오인과 혼란을 줌으로써 극적 긴장감을 끝까지 지속하게 한다. 정적인 서사로만 극이 점철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미약한 긴장감의 문제를 중심서사를 보조해 주는 추리서사를 삽입함으로써 해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휴먼과 로맨스 그리고 스릴러(추리서사)가 병합된 복합장르'²⁷⁾를 표방한 것이 <동백꽃 필 무렵>이 감상자를 끌어들이는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추리서사란 탐정, 범인, 희생자의 인물 유형이 등장하고 불가사의한 범 죄의 발생과 그 해결과정을 플롯으로 삼는 이야기를 말한다. 이러한 추리 서사는 범죄와 연계된 인물을 중심으로 탐정 중심형, 범죄자 중심형, 희생자 중심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탐정 중심형은 경찰검사기자작가 등의 인물이 주인공이 되어 이들이 범죄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범죄자 중심형은 범죄자가 주인공이 되어 그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는 과정에 초점이 놓이며 범죄서사가 전체서사를 주도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희생자 중심형은 희생자가 주인공이 되어 그가 위험 상황에 놓이면서 서스펜스가 유발되는 경우로 희생자의 상황에 따라 서스펜스의 양상이 달라지는 유형이다.²⁸⁾

즈앤비즈, 2002, 112-115면 참고.

27) 차영훈 PD는 <동백꽃 필 무렵>이 '휴먼 4, 멜로 4, 스릴러 2로 결합된 복합장르'이며 이는 히로에라키 병존하는 인간 삶을 현실감 있게 그리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한다(『인터뷰①』 '동백꽃 필 무렵' 차영훈 PD "임상춘 작가와 '메밀꽃 필 무렵' 하고파", 『스포츠조선』, 2019.11.28.).

28)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3, 추리물』, 이론과실천, 2011, 19-27면 참고.

<동백꽃 필 무렵>은 범죄를 저지르는 까불이(범인)와 까불이의 타깃이 된 동백(희생자) 그리고 까불이의 정체를 밝혀내는 용식(탐정)에 의해 추리서사가 전개되는데, 그중에서도 용식이 까불이의 정체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리서사가 전개된다. 따라서 <동백꽃 필 무렵>의 추리서사는 탐정 중심형에 맞닿아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까불이의 범죄 행각이나 동백의 공포심보다는 ‘누가 까불이인가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이다. <동백꽃 필 무렵>에서 추리서사가 삽입된 양상과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회	사건	기능
1	오프닝: 게르마늄 팔찌를 찬 여자가 살해됨	동백이가 게르마늄 팔찌를 착용, 피해자가 동백이라고 추측 혹은 오인하게 함
2	엔딩: 1회의 오프닝 장면이 다시 등장함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동백이일지도 모른다는 분위기를 조성함
3	오프닝: 1회의 살인사건 현장 조사 장면이 재등장함	현장에서 발견된 까불이의 메모를 보여줌으로써 범인 추측 시작하게 함
4	에필로그: 용식이 까멜리아 벽 낙서를 지우다 까불이의 메모 발견함	까불이가 동백이를 노리고 있음을 알려줌
6	까불이의 낙서를 보고 놀리는 소장	동백이와 까불이 관계에 관한 궁금증을 유발함
	동백이를 취재하러 온 기사를 통해 동백이가 까불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는 사실이 밝혀짐	동백이가 사건을 왜 은폐하려 하는지 궁금증을 유발함
	엔딩: 2013년 플래시백, 병뚜껑을 줬던 동백이는 손님의 더러운 신발을 목격, 그 손님은 벽에 경고 메모를 남김	까불이는 ‘신발이 더러운 손님’이라는 단서가 제공됨
7	항미가 자고 있는 까멜리아에 낯선 사람이 있는 장면이 나오고 다음날	어젯밤 까멜리아에 왔던 수상한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증을 유발함

	까불이 낙서가 라이터로 그을려짐	
8	엔딩: 4회 플래시백, 용식이가 까멜리아 낙서를 지울 때 손님 중 한 명이 라이터로 테이블 아래를 굽음	까불이와 관련하여 '라이터'와 '굽는다'는 단서가 제공됨
9	동백이 집 앞에 수상한 사람이 서 있어서 용식이가 쫓아가지만 이내 사라짐	까불이와 관련하여 '바카스병'이라는 단서가 제공됨
10	플래시백: 동백이가 에스텍에서 까불이를 목격했을 당시의 사건이 등장함	까불이와 관련하여 '주기적이고 참을 수 없이 터지는 이상한 기침소리'라는 단서가 제공됨
	소화전 비상벨과 스프링클러 덕분에 살아난 동백	누가 비상벨과 스프링클러를 눌렀는가에 관해 의문 들게 함
	엔딩: 동백이 집 앞에서 9회 때 만났던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용식	까불이와 관련하여 '병거지 모자를 쓴 사람'이라는 단서가 제공됨
11	오프닝: 10회 엔딩에서 추격하는 장면 삽입 후 '30대 건장한 남성이 귀갓길에 변을 당했다는 뉴스 내용 삽입됨	용식이가 까불이를 잡다가 변을 당했을 지도 모른다고 예상하게 함
	항미가 1억을 모아야 코펜하겐으로 떠난다고 걱정하는 장면 등장함	돈이 필요한 항미가 수상하게 보이도록 하여 용의선상에 오르게 함
12	1~3회에 나왔던 사건 현장 다시 등장,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보여줌	피해자가 '86년생'이라는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동백이가 피해자일 가능성을 높임
14	까불이 사건이 발생한 건물을 사들인 규태를 의심하는 주민들	까불이가 규태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게 만들
	엔딩: 함께 장을 보고 까멜리아로 돌아온 용식은 까불이가 벽에 써 놓은 경고를 발견함	극적 긴장감과 까불이에 관한 궁금증을 증폭시킴
15	까멜리아 CCTV를 둘러보는 용식, CCTV에 레커를 뿌리는 용의자를 발견함	까멜리아에 CCTV를 설치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까불이라는 단서를 제공함
	소장은 정숙이가 오고 나서 까멜리아에 수상한 일이 발생한다고 정숙을 의심함	동백 어머니인 정숙이를 의심하게 만들

	용식은 철물점에 갔을 때 규태를 만난 것을 기억해 냄	규태가 까불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만들
16	초등학교 체육장에서 화재 발생, 현장에서 향미가 가지고 다니던 라이터를 발견함	향미가 까불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만들
17	에스테틱 옆 학원의 창문이 열리고 닫힌 것을 발견함	까불이 사건과 학원과의 상관성에 의문을 갖게 함
18	용식은 까멜리아 앞에서 고양이 밥을 발견함	까불이와 관련하여 '고양이 밥'이라는 새로운 단서 제공함
	엔딩: 라이터를 뺏기던 수상한 사람이 까멜리아로 들어오는 순간 동백이가 반갑게 인사하는 장면	까불이가 동백이와 잘 아는 사이라는 단서를 제공함
19	연이은 방화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라이터가 발견됨	라이터를 모으는 향미가 용의선상에 다시 오르게 됨
20	엔딩: 향미가 고양이 밥을 주는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함	향미가 아니라 향미와 대화하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짐
	1~3, 12회에 등장했던 사건 현장 다시 등장, 이번에는 '최고운'이라는 피해자의 이름까지 알려줌	'최고운'의 실제 정체를 궁금하게 만들
21	오프닝: 까불이가 향미를 죽였다는 사실을 밝힘	향미가 범인이 아니고 까불이가 죽인 최고운이 향미라는 사실을 알려줌
22	손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간 용식과 까멜리아 앞에서 고양이 사료를 든 홍식을 발견한 용식	고양이 밥에 약을 탔다는 점과 홍식이가 고양이 밥을 주고 있었다는 정보 제공, 홍식이가 용의선상에 다시 오름
23	까멜리아에서 라이터 자국을 발견한 용식은 홍식이를 의심함	홍식이가 범인이라는 느낌을 강화함
24	22~23시경 까멜리아로 걸려온 주문전화, 주문자는 기침 소리를 냄	'이상한 기침소리(10화)'라는 단서를 통해 주문자가 까불이라는 것을 알게 함
25	향미가 죽던 날 향미의 마지막을 본 네 사람이 지목됨	종렬, 제시카, 규태, 정숙 중 한 사람이 까불이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게 만들
26	시장에 장보러 간 동백이가 2층 사무실에 갇히고 화재가 발생함	까불이가 사용한 메모지를 보여줌으로써 동백이를 죽이려한 사람이 까불이라

		는 것을 알려줌
27	그동안 은둔해 있던 홍식이 아버지가 등장함	“아빠 제발 아무것도 하지 좀 마 제발”이라는 홍식을 통해 까불이가 홍식 아버지일 것이라고 추측하게 함
	향미 통장에 규태 이름이 찍혀 있음	규태 역시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수 없게 만들
28	경찰서로 연행된 규태, 규태는 “콧 죽 여버릴까 그러긴 했어”라는 수상한 말을 함	규태가 다시 용의선상에 오르게 만들
29	논두렁 CCTV를 습득한 홍식은 현장에 찍힌 종렬의 차를 발견	종렬이 용의선상에 오르게 만들
30	향미 사건으로 불안해하는 제시카와 규태 모습	제시카와 규태가 향미 사건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제공함
	에스테틱 사건 당일 CCTV 확보한 용식, CCTV에서 까불이를 따라 들어가는 정숙을 발견함	10회에서 나온 비상벨과 스프링클러를 작동한 사람이 정숙이라는 사실을 알려줌
	홍식이 가게를 찾아온 정숙은 “너지 까불이”라며 홍식이 까불이라고 확신함	정숙을 통해 홍식이 다시 유력한 용의자가 됨
31	향미를 죽인 사람은 제시카와 규태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짐	제시카와 규태의 결백으로 인해 홍식이 다시 유력한 용의자가 됨
32	플래시백. 향미가 홍식이네 방문했을 때 호통 치던 홍식이 아버지	“고양이 그렇게 죽었으면 됐잖아”라고 말하는 홍식이를 통해 홍식이 아버지가 다시 용의자가 됨
33	홍식이 정숙을 따라와 ‘제가 다 보증할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함	아버지를 변론하는 홍식을 통해 홍식 아버지의 까불이 설이 유력해짐
34	자영은 23일 밤 향미를 목격했다며 경찰서를 찾아옴	규태, 제시카, 종렬, 자영, 정숙이 용의자가 아니라 목격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함
35	홍식의 집에 DNA를 채취하러 서울경찰이 찾아오고 홍식 아버지는 고양이가 할퀸 상처에 약 바름	홍식 아버지가 까불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함
	향미 식당에서 노란 물체가 발견됨	향미가 죽기 전 까불이를 지목하기 위

		해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단서를 제공함
36	홍식 아버지가 5년 전 추락사고를 당한 후부터 살인사건이 중단된 것을 알게 된 용식은 홍식 아버지를 연행해 감	홍식 아버지가 까불이라고 확정하게 만듦
37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홍식 아버지를 추궁하는 용식과 '자기를 무시해서 살해했다는 홍식 아버지	홍식 아버지가 까불이라고 다시 한번 확정하게 만듦
39	까불이가 동백이를 찾아가 협박함으로써 홍식이라는 사실이 밝혀짐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고 연기를 한 홍식에게 분노를 느끼게 함
40	동백과 주민들에게 맞은 뒤 체포된 홍식	범죄자 응징에 따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함

<표1> <동백꽃 필 무렵>의 추리서사 삽입 양상 및 기능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백꽃 필 무렵>은 1회 오프닝부터 살인사건을 삽입하여 감상자에게 마을에 잔인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누군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이후 극은 다시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전개하다 21회에 도달해서야 그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극중인물 향미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 과정에서 1회 오프닝에 등장했던 살인사건 현장을 2회, 3회, 12회, 20회에 반복하여 삽입하되 정보의 노출을 조율하여 상이하게 보여준다. 특히 주민등록증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86년생이고 최고운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등을 점진적으로 노출해 나가며 동백이와 향미 중 누가 피해자인지를 혼동하게 만든다.²⁹⁾ 그리고 극이 절반 정도 진행되고 나서야 1회 오프닝에 등장했던 게

29) 추리서사에서는 놓치기 쉬운 세부적인 단서들의 발견에서 추리적 사유가 시작된다(김민영, 「김은희 추리극에 나타난 기억과 폭력의 양상 연구: TV드라마 〈싸인〉, 〈유령〉, 〈시그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51면). <동백꽃 필 무렵>은 범인과 피해자에 관한 세부적인 단서를 점층적으로 제공하면서 감상자를 추리적 사유로 이끈다.

르마냥 팔찌를 찬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향미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다. 이처럼 <동백꽃 필 무렵>은 정보량을 조율하며 사건에 관한 실마리를 조금씩 풀어내는 전략을 사용하여 진실에 관한 감상자의 욕망을 자극해 나간다.

정보를 은폐하여 감상자의 욕망을 자극하는 전략은 ‘까불이의 정체’를 밝히는 일에 집중적으로 사용된다. <동백꽃 필 무렵>은 까불이의 정체를 밝히는 일을 추리서사의 핵심에 놓는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동백꽃 필 무렵>에서 추리서사는 중심서사의 액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보조서사로 활용되며, 동백이의 성장과 로맨스 그리고 웅산 주민들과의 연대과정이 구축하는 낭만적이고 감동적인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을 정도로만 삽입된다. 따라서 추리서사를 일정 부분 삽입하되 범죄 행각을 자세히 묘사하여 공포감을 강화하지는 않는다. 또한 추리서사의 긴장감을 활용하되 범죄자와 범죄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 범죄자의 정체를 밝히는 일에 초점을 두으로써 범주의 공포보다는 진실 규명에 대한 관심을 자극한다. 그 결과 ‘까불이가 누구인가에 관한 궁금증이 극을 마지막까지 시청하게 하는 중요한 감상동기로 작용한다.

까불이의 정체는 마지막 방영일인 39회에 가서야 밝혀진다. 그동안 까불이는 신발이 더럽고 특정 라이터를 사용하며 이상한 기침소리를 낸다는 정보가 점진적으로 제시된다. 그와 더불어 1억이 필요하고 라이터를 훔치는 습관이 있는 향미, 까불이 사건이 발생한 건물을 사들여 차익을 얻은 규태, 웅산에 갑자기 등장하여 치매라고 모두를 속인 수상한 정숙, 추락사고 후 5년간 침거한 석용(홍식父) 그리고 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는 홍식 등을 까불이로 오인하게 만든다. 특히 중반부에 가서는 용식이 석용을 용의자로 확신하고 검거하면서 일단락되었다고 믿었던 까불이 정체가 사실은 홍식이로 밝혀지는 반전을 꾀한다. 이러한 범인에 관한 오인과 반전은 극에 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효과적인 장치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³⁰⁾

추리서는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즉 범죄 동기에 따라 주제의 식이 달라진다. <동백꽃 필 무렵>은 범인인 까불이의 범죄 동기를 ‘사이코패스와 ‘약자를 향한 혐오’로 설정한다. 까불이는 어린 시절부터 고양이를 죽이고 범죄 전 화재를 저지르는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일시적 쾌락을 위해 방화를 저지르는 것으로 비춰볼 때 까불이는 사이코패스라 할 수 있다. 까불이는 그동안 자기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여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 차례로 죽여 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초등학교와 여성 등 주로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쉬운 존재였으며 까불이의 과대망상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심지어 동백이는 까불이한테 호의적으로 대했지만 까불이는 동백이의 호의를 동정과 무시로 받아들여 동백이를 죽이려 한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도 개인의 분노를 약자를 향한 범죄로 표출하는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혐오 범죄는 사회 구조적 문제와도 밀접한데 개인의 위치가 점점 불안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열등감, 불안, 우울, 공포 등의 상태에 빠지는 개인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나 권력자들에게 저항으로 나아가기보다 손쉬운 상대를 골라서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³¹⁾ 까불이 역시 개인의 열등감과 분노를 해결하고자 약자를 희생양 삼아 책임을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범죄를 실행한다. 결과적으로 <동백꽃 필 무렵>은 로컬이라는 낭만적 공간에 현대사회의 공포를 침투시킴으로써 시대적 리얼리티를 일정 부분 담보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동백꽃 필 무렵>은 낭만성을 지향하는 작품답게 범죄자인 까불이를 처단하는 방법이나 피해자의 행보 역시 다소 낭만적으로 재

30) <동백꽃 필 무렵>이 방송될 당시 인터넷상에서는 누가 까불이인지를 추측하는 글이 수시로 게시될 정도로 까불이의 정체에 관한 궁금증은 감상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하였다.

31) 홍성수, 「혐오(hate)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법학연구』 30(2),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195면 참고.

현한다는 것이다. 보통 추리서사에서 피해자는 무력하게 그려지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주체가 범인을 검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동백꽃 필 무렵>은 동백이의 성장서사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피해자 동백이가 까불이 사건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에 관심을 둔다. 그로 인해 동백은 무력한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웅산 주민을 배후 삼아 까불이의 공포를 견뎌낼 힘을 갖는 데까지 나아간다. 특히 웅산 주민들은 웅산과 동백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평범의 기적을 구현하며 연대의 위대함을 함께 보여준다.

결국 동백이는 까불이의 머리를 향미의 맥주잔으로 쳐서 쓰러트리는 것으로 복수에 성공한다. 사이코패스 범 죄자가 피해자에게 무력하게 당한다는 설정은 다소 판타지적이지만 동백의 성장 서사를 지켜본 감상자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연대하여 까불이를 제압하는 장면 역시 다분히 판타지적이지만 선의의 승리라는 쾌감을 유발한다. 결과적으로 <동백꽃 필 무렵>의 추리서사는 중심서사를 보조하여 극적 긴장감을 유발하면서도 주인공 동백의 성장과 웅산 주민과의 연대의식이라는 중심서사의 주제의식을 강화하는 데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은 <동백꽃 필 무렵>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평론가와 대중 그리고 전 세대에 걸쳐 큰 호응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하나의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는 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특히 영상콘텐츠의 경우 배우는 물론이고 편집이나 음향 같은 요인들까지도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동백꽃 필 무렵>이 호

평을 받은 이유를 탐색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규명하기 힘든 차원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본고는 <동백꽃 필 무렵>이 기존 텔레비전드라마와 변별되는 낮은 전략을 사용했으며 그것이 대중의 호응을 받은 중요한 요인이라 판단했다. 바로 로컬로서의 웅산과 추리서사로서의 까불이의 활용이다.

<동백꽃 필 무렵>은 어린 필구를 데리고 웅산에 입성한 동백을 중심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이야기'³²⁾를 보여준다. 겁 많은 동백이가 세상의 편견과 폭력에 맞서게 된 힘의 근원은 가족, 순전한 연인 용식 그리고 향미와 웅산 주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있다. 이를 통해 <동백꽃 필 무렵>은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진실을 알려준다. 까불이들이 판치는 불안하고 부정확한 세계를 극복할 방법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동백꽃 필 무렵>의 주제의식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심인물인 동백과 용식뿐만 아니라 정숙, 덕순, 향미, 종렬, 규태, 자영, 제시카 그리고 필구와 주민들까지를 이야기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며 저마다의 삶에 관심을 갖는다. 이로 인해 <동백꽃 필 무렵>은 세상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의 움직임에 의해 구성된다는 진실까지 함께 알려준다.

이처럼 <동백꽃 필 무렵>은 폭력적인 시대를 폭력적으로 재현하여 시대의 부정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현재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분위기를 답습하기보다 순진하고 보수적인 방식으로 특유의 분위기를 구축해 냈다. 그리고 이 특유의 분위기는 웅산이라는 로컬 공간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현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에 위치한 바닷가 마을로 설정된 웅산은 서울 그리고 도시와는 확연히 다른 장소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다. <동백꽃 필 무렵>은 로컬의 장소 정체성을 적극 활용해 웅산을 낭만적이고 인간적인 공간으로 재현한다. 아름다운 풍광으로 둘러싸

32) <동백꽃 필 무렵> 공식 홈페이지 '기획의도 및 인물 소개' <http://program.kbs.co.kr/2tv/drama/camellia2019/pc/index.html> 참조.

인 웅산은 목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시각적으로 완화해 준다. 특히 <동백꽃 필 무렵>은 웅산의 낭만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웅산 주민들의 생업 문제를 최대한 생략하고 계장골목을 오라과 근린 그리고 연대의 장소로 활용한다.

또한 개인주의와 익명성의 소외가 만연한 도시와 다르게 웅산 주민들은 혈연공동체이자 운명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간다. 계장골목을 위시 한 웅산 주민들은 공통경험으로 구축된 견고한 관계성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점은 견고한 관계성이 이방인 동백에게까지 허용된다는 것이다. 가족과 세상에 버림받은 동백은 고향과 가족을 대리해 줄 대상으로 웅산을 선택한다. 물론 견고한 토박이 네트워크를 보유한 웅산은 이방인 동백을 경계하지만 이내 동백을 가족으로 품어내고 동백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기까지 한다. 이러한 이유로 웅산은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이상적인 고향의 장소감(sense of place)을 발산한다. 그러한 데다가 순박하고 무구한 음식은 웅산이라는 로컬을 더욱 안전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며 로컬 판타지를 강화하는 데 일조한다.

이와 같이 지리적 조건에서 특별한 장소성 그리고 사람들까지 로컬 판타지를 강화하는 데 일조한 <동백꽃 필 무렵>은 동시대의 이야기면서도 원거리의 이야기인 듯한 착각을 들게 하며 생경한 안락함을 제공한다. 결국 <동백꽃 필 무렵>이 대중에게 호응받은 이유는 ‘피로사회와 성과사회(한병철)로서 낭만을 상실한 시대 혹은 낭만을 논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낭만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낭만이 가능했던 것은 로컬 정체성을 보유한 웅산이라는 낯선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백에게 구원의 공간이 된 웅산은 비록 원거리지만 어딘가에는 현 시대와 다른 속력과 방향으로 존재하는 낭만의 로컬이 있다는 판타지를 갖게 한다.

그런데 <동백꽃 필 무렵>은 로컬과 로컬 주민들의 낭만적 정황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까불이로부터 발생되는 추리서사를 서브플롯으로

삽입하여 극적 긴장감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한다. 낭만적 판타지에만 집 중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미약한 긴장감과 리얼리티의 문제를 중심서사를 보조해 주는 추리서사를 삽입함으로써 해결한 것이다. 이처럼 휴먼과 로맨스 그리고 스릴러가 병합된 복합장르를 표방하며 새로운 장르성을 선보인 점 역시 <동백꽃 필 무렵>이 감상자를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동백꽃 필 무렵>은 용식이 까불이의 정체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리서사가 전개된다. 그리고 정보량을 조율하며 진실에 관한 실마리를 조금씩 풀어내는 전략을 사용하여 진실에 관한 감상자의 욕망을 자극해 나간다. 또한 중심서사 즉 동백이의 성장과 로맨스, 웅산 주민들과의 연대 과정 등이 구축하는 낭만적이고 감동적인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을 정도로만 추리서사가 삽입된다. 즉 까불이의 범죄 행각이나 피해자의 공포심보다는 누가 까불이인가에 초점을 두면서 범죄 자체의 공포보다는 진실 규명에 관한 관심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추리서사를 활용한다.

추리서사는 범죄 동기에 따라 주제의식이 달라진다. <동백꽃 필 무렵>은 까불이의 범죄 동기를 사이코패스와 약자 혐오로 설정한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도 사이코패스와 약자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까불이의 범죄는 시의성을 확보한다. 로컬이라는 낭만적 공간에 까불이로 상징되는 현대사회의 불안을 침투시킴으로써 시대적 리얼리티도 일정 부분 담보하게 된 것이다. 또한 <동백꽃 필 무렵>은 낭만성을 지향하는 작품답게 범인의 응징 역시 피해자 동백이가 까불이를 직접 처단하는 것으로 다분히 낭만적으로 처리한다. 이처럼 <동백꽃 필 무렵>은 추리서사를 활용하되 중심서사와 주제의식을 보조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한정하여 사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임상춘 극본, 차영훈·강민경 연출, 〈동백꽃 필 무렵〉(KBS2), 2019.9.28.-2019.11.21.

〈동백꽃 필 무렵〉 공식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2tv/drama/camellia2019/pc/index.html>

2. 단행본

부산대학교 한민족문화연구소 엮음, 『로컬의 일상과 실천』, 소명출판, 2013.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3, 추리물』, 이론과실천, 2011.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현, 2008.

에바 일루즈, 김희상 옮김, 『사랑은 왜 불안한가-하드코어 로맨스와 에로티시즘의 사회학』, 돌베개, 2014.

에바 일루즈, 박형신·권오현 옮김,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사랑과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이학사, 2014.

이유혁 외, 『로컬서사와 재현』, 소명출판, 2017.

이-푸 투안, 구동희 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장세룡 외, 『사건, 정치의 토포스』, 소명출판, 2017.

조단 E. 로젠펠드, 이승호·김청수 옮김, 『임팩트 있는 장면을 만드는 스토리 기법』, 비즈앤비즈, 2002.

지그문트 바우만, 최호영 옮김, 『도덕불감증』, 책읽는수요일, 2015.

지명렬, 『독일 낭만주의 총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콜린 엘러드, 문희경 옮김,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길벗, 2016.

폴 로버츠, 김선영 옮김, 『근시사회』, 민영사, 2016.

Louis E. Catron, 『The Elements of Playwriting』, Waveland Press Inc, 1993.

3. 논문

김민영, 「김은희 추리극에 나타난 기억과 폭력의 양상 연구: TV드라마 〈싸인〉, 〈유령〉, 〈시그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박경환, 「글로벌, 로컬, 스케일 공간과 장소를 둘러싼 정치」, 『로컬리티 인문학』

Vol.5, 부산대학교 한민족문화연구소, 2011, 47-85면.

백경선, 「초능력자 남성 주인공과 멜로드라마 캐릭터의 확장-텔레비전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별에서 온 그대>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제61집, 한국극예술학회, 2018, 303-331면.

백소연, 「텔레비전드라마 <W>에 나타난 서사적 삶에 대한 열망과 상상의 쾌락」, 『한국극예술연구』제60집, 한국극예술학회, 2018, 139-163면.

최용성, 「부산 로케이션 영화와 탈식민성의 로컬문화윤리」, 『한민족문화』Vol.47, 부산대학교 한민족문화연구소, 2013, 427-467면.

홍성수, 「혐오(hate)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법학연구』Vol.30 No.2,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192-228면.

Abstract

A Study on <Dongbaekkkot pil muryeop>
—Strategic Merge Between Local Romance And Detective
Narrative

Lee Daun

The drama <Dongbaekkkot pil muryeop> broke away from Seoul, which represents monotonous spatiality, and reconsidered the meaning of locality and focused on the stories of ordinary people who sustained their daily lives without being polluted from the violent era. As a result, <Dongbaekkkot pil muryeop> was recognized as "the best Korean drama in 2019" and an exceptional case where a non-mainstream story that was overlooked by television drama in South Korea dominated the mainstream. The background of the drama <Dongbaekkkot pil muryeop> was based on an imaginary local area called 'Ongsan' and an opportunity was provided to embody a romantic life that stands out from the urban area. In particular, Ongsan deviated from the law of survival that applies in the modern urban area such as employment, competition, and success and the people that live in Ongsan also stimulate the pre-modern nostalgia, unlike people who live in the modern urban area.

<Dongbaekkkot pil muryeop> leaves out the livelihood issues of the residents in Ongsan as much as possible and optimizes the romantic trend in Ongsan. In particular, the 'crab alley,' which maximizes the romantic trend in Ongsan, exists as a location that represents the identity of Ongsan and reveals the sturdy relationship built through the common experiences of the residents. Likewise, Ongsan is characterized by a special sense of place in terms of the geographical conditions and contributes to reinforcing the 'local fantasy' in people. Moreover, as the local element, the fantasy in Ongsan reaches the

climax through Yong-sik, the main male character. However, <Dongbaekkkot pil muryeop> does not ignore the periodical anxiety while reenacting the local story in a romantic manner. A mysterious character named 'Kka-bul-e (prankster)' was inserted to make a premise that crimes and fear can also exist in Ongsan, a peaceful area.

The drama <Dongbaekkkot pil muryeop> does not only reenact the romantic circumstances of the local area and residents as the character, 'Kkal-bul-e' and murder cases were applied as the sub-plot and used as a strategy to heighten the dramatic anxiety. Moreover, the truth about the characters and the cases were concealed until the end and caused intended misconception and confusion to the viewers and sustained the dramatic anxiety until the end. In case the drama only involves series of static narrative, it could lead to the issue of weak anxiety but this was solved by inserting detective narrative that assists the central narrative. In conclusion, the drama <Dongbaekkkot pil muryeop> stands out from other works and received great popularity from the public and literary critics because it provides romance that conceals the violent era, although it is not overlooked, and also creates a balanced merge between the escape into romance and realistic problems.

Key words: <Dongbaekkkot pil muryeop>, space, romance, local, locality, location, detective narrative, multi-genre, TV dramas

접 수 일: 2020년 2월 8일

심사기간: 2020년 2월 14일~2020년 2월 28일

게재결정: 2020년 3월 17일